

“작품 복원은 소중한 인류 유산 지키는 일”

보존·수복 전문가 김종욱 소장
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수조사 참여
동경예술대 문화재 보존학 박사
회화복원 연구소 운영...대학 강의



김종욱 회화복원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종욱 대표는 회화복원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은 5개월여간 소장품 5236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개관 30주년을 맞아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수장고에 소장된 작품을 하나 하나 살펴 상태를 확인한 후 작품 등급을 네 부류로 정했다. 품이 많이 들어간 이번 조사에는 미술관 작품관리 담당 운영팀 학예사와 함께 보존·수복 전문가 김종욱(김종욱 회화복원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 작업실에서 그를 만나 낯선 직업인 보존·수복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명함엔 유화 복원, 회화 조사, 미술품 컨디션 체크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김 소장장과 광주시립미술관의 인연은 일본과 광주를 오가며 활동하던 지난 2007년 시작됐다. 기획전을 준비하던 미술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지금까지 이우환과 오윤의 작품을 비롯해 재일교포 전화환·김영숙 작가 작품 등을 작업했다. 이번 전수 조사 과정에서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된 작품은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복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미술교육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그는 당시 지도교수였던 신경호 교수에게서 미술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후 일본에서 공부하고 전남대에서 한국화 강의를 하던 주재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복원 전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복원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는 일본행을 결심했고, 동경예술대학에서 문화재 보존학을 전공하고 문

화재보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술품 복원이라는 게 결국은 인류 유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림과 계속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구요. 복원은 손재주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의 복원 기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동경예대를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서양화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동경예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희동의 ‘자화상’ 등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을 눈으로 보고 조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유화 작품도 유럽과 일본, 한국 그림이 달라 복원할 때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재질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이죠. 유럽 쪽은 거칠게 다루어도 쉽게 손상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한국 그림을 다루면 손상될 우려가 있지요. 일본은 복원에 대한 개념이 치밀하고 꼼꼼하지요. 작품을 다루는 ‘엄중한 시각’을 배우게 된 건 큰 소독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동경국립 박물관에 계약적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하며 박물관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고 동경예대에 있는 외주 받은 작품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김관호의 ‘해질녘’,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등을 작업했다.

일본 현대사의 중요 현상인 동경대 야스다 강당 대형벽화를 복원할 때는 사용할 재료, 진행 방식 등을 결정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품을 작업한다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광주에서는 개인 소장품과 관련해 문의가 많이 들어 오기는 하지만 복원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경우 그림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아버지가 아꼈던 그림이라’는 이유 등으로 복원을 요청하며 그림에 애착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복원해 가치를 높여 팔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듯 해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든다.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를 떠나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같습니다. 캔버스가 찢어져 삭아있거나, 물감이 떨어져 보기 힘든 작품을 제 판매 원래 상태로 복원해내면 그만큼 뿌듯하죠. 그림을 가져올 때와 돌려보낼 때 차이점이 확연히 보여질 때는 기분이 좋지요. 처음 그림을 가져올 때는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며 어떤 손상이 있고,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복원할까 고민하는 과정이 행복하죠. 재미있기도 하구요. 훼손이 심한 작품은 2-3개월 갖고 있기도 하는데 돌려보낼 땐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강의해온 전남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중에는 초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직업’으로 삼는 이들은 없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복원 작업을 하며 손상된 것을 내 손으로 고치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작품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고 복원하는 게 필요하죠. 간단하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복원은 결국 자기에게 진실한 작업인듯 합니다. 복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자산을 지키는 일이기에도 보람도 있고요.”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초의차문화연구원 주최하는 ‘우리차 깊이 알기 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광제서원.

도심 속 한옥 사찰, 전통차를 더하다

‘우리차 깊이알기연구회’ 창립 신년다회...22일 광제서원

도심 속 한옥 사찰에서 한국 전통차의 전수를 만나다.

초의선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초의차문화연구원(이사장 여연 스님)이 임인년 새해를 여는 신년다회와 ‘우리차 깊이 알기 연구회’ (우차연) 창립식을 연다.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제선원(선원장 보명 스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신년다회와 한다·현향, 우차연 창립식, 품다경연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가 열리는 한옥 사찰 광제서원은 참선과 명상을 주로 하는 시민선원으로 초의차문화연구원의 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립을 앞둔 우차연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차들을 맛보고 다원을 순례, 차 농가들과 교류하며 제다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차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이해, 차소비와 홍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선후기 승려인 초의선사는 두류산 기

슌에 ‘일지암’(一枝庵)을 짓고 정약용 등 당대의 실학자, 문인,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한국 차의 전통을 지켰다. 여연 스님은 일지암에서 초의선사의 정신을 이어 우리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초의차문화연구원은대한민국차문화평화를 기치해 왔고 광주전통차박람회와 한국차문화학회 설립하는 등 우리차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해남 두류산 뒷편에 반야다원이라는 다원을 직접 조성하고, 차생산단체 ‘남천다회’를 만들어 전통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보명스님은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차문화가 가진 정신적 수량의 가치를 되살려 내기 위해 열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예방 등을 위해 참석자들은 개인 차를 가져와야 된다. 문의 010-9191-968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다큐 상영·감독과 대화

‘미싱타는 여자들’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감독 초청

광주극장은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20일 개봉하는 ‘미싱타는 여자들’의 관객과의 대화는 23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이혁래·김정영 감독과 영화의 주인공 이숙희·신순애·임미경 등이 참석하며, 진행은 지난해 일신방직공장에서 ‘터무니의 기록’ 작업을 한 예술인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가 맡는다.

작품은 여자라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 대신 미싱을 탈 수밖에 없었던 1970년대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그린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및 제13회 DMZ국제다큐멘

터리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27일 개봉) GV는 30일 오후 1시에 마련된다. 위경혜 연구자의 사회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김동령·박경태 감독이 참석한다.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우화적인 표현한 이 영화는 누구보다 죽음을 많이 본 미군 위안부 출신 박인순이 스스로 자신의 복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저승사자에게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밖에 슬과 함께하는 진솔하고 짜릿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아너 라운드’(27일)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

고전부터 OST까지...김기용 첼로 리사이틀

19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피아니스트 최원용 협연

고전주의 시대 대표 작곡가 하이든의 곡부터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을 첼로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김기용(사진) 첼로 리사이틀이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반디니, 브레발, 하이든, 구아스타비노 등의 곡을 비롯해 찰리 채플린,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의 곡을 연주한다.

공연은 반디니의 ‘첼로 소나타 F장조’와 ‘첼로 소나타 G장조’를 시작으로 브레발 ‘첼로 소나타 C장조 OP.40’,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 1번’, 구아스타비노

‘로지타 이글레시아스’로 이어진다.

아울러 영화배우였지만 첼리스트이기도 했던 찰리 채플린의 ‘OH! THAT CELLO’, ‘CROSSING THE DANCE FLOOR’와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피아니스트의 전설’, ‘시네마천국’ OST, 존 윌리엄스의 ‘윈들러 리스트’ OST 등도 만날 수 있다.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최원용이 함께한다.

전남대를 거쳐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기용은 순천대와 광신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나무어뮤직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83-088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